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양육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 광 만(연세대 박사과정) · 이 숙 현(연세대 교수)

오늘날 새로운 양육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제기되고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영역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정 영역에서의 아버지의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양육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그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살면서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학령 전기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직장에 근무하는 아버지 206명이다. 부모 역할 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로, 양육 참여 수준은 Radin(1989)의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 Index(PICCI)'를 수정한 이지영(2008)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장세진과 그 동료들(2005)이 개발한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단축형으로, 일-가족 갈등 측정은 Carlson, Kacmar와 Williams(2000)의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를 변안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가족 갈등의 매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는 일-가족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의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양육 참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양육 참여 수준은 낮아졌다. 셋째,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만족도에 대한 일-가족 갈등의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부모 역할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beta = -.389, p < .001$)의 유의수준은 동일하되 그 크기가 소폭 감소하였고($\beta = -.300, p < .001$), Sobel Test 결과 역시 테스트 값이 유의하였다($p < .001$). 넷째, 아버지의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참여 수준에 대한 일-가족 갈등의 완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양육 참여 수준에 대한 회귀계수($\beta = -.165, p < .05$)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Sobel Test 결과 역시 테스트 값이 유의하였다($p < .001$).

본 연구를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일-가족 갈등과 아버지 역할 수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일-가족 갈등을 거쳐 아버지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